

의사 파업에 전남권 의대 설립 물거품 되나

정부여당-의료계, 의대 증원 재검토 합의에 우려 목소리
김영록 전남지사 “도민 건강권 위해 의대 신설 간곡 호소”

정부 여당과 의료계가 지난 4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설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전국에서 의료 현실이 가장 열악한 전남의 30년 숙원사업인 의대·대학병원 설립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드러난 의료 전문 인력 부족, 수도권·비수도권 간 및 지역 간 심각한 의료 격차 등을 감안한 의료 혁신에 대한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의료계의 집단이기주의와 장기간의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의료계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정부·여당의 합의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한 전남의 의료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마저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3면〉
6일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회에 따르

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 추진 관련 논의를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중단한 뒤 의협과 민주당이 협의를 구성,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 같은 합의에 전남도와 관련 지자체, 시민단체 등이 전남권 의대·대학병원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등 대응이 나왔다. 의료계 파업은 중단할 수 있게 됐지만, 의료 기반시설, 의료 인력 등이 가장 열악한 전남은 지역 숙원사업을 정부·여당과 의협의 재논의되는 과정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과제를 남겼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이 지난 7월 말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전남·지자체와 지역사회는 사실상 전남에 의대와 종합병원이 들어서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크게 반

경인구 비율 22.6%, 장애인 비율 7.6%로 의료취약계층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고, 섬도 가장 많아 의료 접근성이 매우 취약해서 의과대학이 꼭 필요하다”며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연간 80만명이 타 시도에서 진료 받고 있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중증환자들이 치료받을 대학병원이 없어 타 지역에서 치료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지사는 “전남지역 의과대학 설립은 도민들의 지난 30여 년간 숙원으로 일괄되게 정부와 의료계에 요청해왔으며, 지역 의료계에서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한중 전남도의회 의장 역시 6일 “민주당과 대한의사회가 의대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큰 결단으로 환영하지만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의 의대 설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알립니다
문화예술 매거진 ‘예향’
통권 300호 발행합니다



창간호(1984년 10월호)



복간호(2013년 4월호)



299호 (2020년 9월호)

광주일보사가 발행하는 월간 문화예술잡지 ‘예향’이 10월호 통권(通卷) 300호를 맞습니다. 〈관련기사 22면〉 월간 ‘예향’은 5·18 민주화운동의 참혹한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1984년 10월, ‘전라도 사람들의 맛과 열을 지켜나갈 전라도 사람들의 잡지’라는 가치를 내세우며 탄생했습니다. 창간호 이후 월간 ‘예향’은 시대정신과 남도의 전통 문화, 현장의 예술인들을 다각적으로 다뤄 독자들의 호응을 받았습니

다. 앞으로 월간 ‘예향’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가뭄에 마르지 않는 샘이 깊은 물처럼 정진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애정어린 성원과 격려 바랍니다.

光州日報社

코로나19 확산 ‘추석 대이동’ 어렵다

여당대표·총리 “이동 자제”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으로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재확산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추석 대이동’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집권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6일 추석명절 이동 자제를 직접 당부한데 이어 당정이 관련 대책까지 내놓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도 오는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추석연휴를 코로나19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광주 북구 각화동 성림침례교회 교인 463명이 자가격리 해제를 앞둔 6일 광주 북구보건소 앞 광장에 설치된 이동식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복절 집회 이후 코로나19가 대규모로 확산한 탓에 방역 당국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명절에 전국적인 이동이 있을 경우 다시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국민에게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이 대표는 “어떤 분은 ‘집콕’, ‘방콕’ 추석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그 말씀까지는 차마 못드리겠지만, 추석까지 잘 넘겨 코

로나19를 빨리 진정시키도록 함께 노력하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추석) 연휴만큼은 이동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집에 머무르시길 국민께 요청드리다”며 “추석 연휴가 또 다른 재확산의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해 이 대표의 말을 즉면 지원했다.

한편, 당정정은 동시에 이날 말 추석을 계기로 민생 안정 대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민생 안정 대책은 추석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는 원칙으로, 서민불가관리 등 민생 부담 완화, 전통시장·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하향

광주시는 2.5단계 유지

전남도가 8일 0시를 기해 기존 2.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수도권에 내려진 2.5단계 거리두기와 전국에 내려진 2단계 조치를 유지하기로 한 정부의 기조를 고려한 조치다. 광주시의 경우 확진자 발생 추이를 지켜보며 오는 9일 민관대책위원회 회의의를 거쳐 10일 방역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2.5단계)를 13일까지 1주일 연장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국에 시행 중인 거리두기 2단계도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한때 400명대까지 치솟았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 후반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단계라는 판단에서다.

광주시는 오는 9일 민관대책위원회 회의의를 거쳐 10일 방침을 확정짓기로 했다. 광주시는 앞서 북구 성림교회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쏟아지자 3단

계에 준하는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내린 바 있다. 2.5단계 시행으로 유흥시설 등 고위험 시설 위주로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는 중위험 시설까지 확대됐다. 전남도의 경우 7일 자정까지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유지한다. 8일 0시부터는 거리두기 2단계로 조정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시장·군수가 필요할 경우 2.5단계 유지도 허용했다. 2.5단계와 2단계의 가장 큰 차이는 실내 체육시설 등 중위험 시설이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되느냐 여부다. 2단계 거리두기에서는 마스크 착용·방명록 작성·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할 경우 중위험 시설의 영업(집합)이 가능하다.

/박진호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 대환영! 미래로!

정여준과 영요문 광주

광주상생카드

특별할인확대

[선불·체크]

10%

특별할인가간: 2020.12.31까지(할인지원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체크카드(캐시백 지급)

광주상생체크카드로 한달에 50만원 이용 시 5만원을 캐시백으로 입금

선불카드(구매할인)

광주상생선불카드를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50만원권을 45만원에 구매)

1인당 한달에 최대 10만원 혜택 (연말정산소득공제 30%까지)

광주상생카드 종류

체크카드

선불카드(3·5·10·20·50만원권)

발급신청 및 구매방법(만 14세 이상)

체크카드
광주은행 영업점,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k.com)
광주은행 모바일웹(m.kjbk.com)

선불카드
광주은행 영업점
※ 현금 또는 광주은행 신용·체크카드로 구매 가능

이용제한 업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온라인 가점점 (PG, 인터넷MALL), 유흥업소 등

사용자 혜택

할인가간: 2020년 광주광역시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할인대상: 체크카드, 선불카드 사용·구매자 [법인·단체 제외]

할인율 및 1인당 월간 할인 구매한도:
*평시: 5% / 70만원 (체크 20만원, 선불 50만원)
*특별할인: 10% / 100만원 (체크 50만원, 선불 50만원)

사용업소 혜택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의 광주상생카드 결제수수료 전액 지원

카드 이용 문의전화

광주은행 카드 헬프센터 1577-3650

이용가능 업소

광주광역시 소재 9만여개 가맹업소

광주상생카드 이렇게 사용하세요!

동네수퍼·시장에서 장보실 때, 외식할 때, 자녀 학원비 낼 때, 부모님 병원비, 미용실 이용 등 광주지역 소재업소에서는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